

동맥관개존증의 제한적 절개술에 의한 클리핑 (clipping)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 흉부외과
원용순·원태희·최수승

동맥관개존증의 치료는 약물요법, 수술요법, 혈관내 폐쇄요법 등이 있다. 미숙아에서는 약물요법이 효과적이며, 그외에는 수술요법이 필요하다. 피부 및 흉곽절개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혈관내 동맥관폐쇄요법이 발달하였는데 기구가 비싸며 잔류단락 등 고려할 문제가 많다.

본원에서는 통상적인 개흉술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소흉술 또는 흉강경수술에 의해 동맥관을 clipping 하였다. 1995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소개흉술(Minithoracotomy : MT)에 의한 동맥관 clipping이 6명, 흉강경수술(VATS)에 의한 동맥관 clipping이 6명이었다. 소개흉술은 3cm의 피부 절개후 제3늑골간을 통해 직접시야를 확보한 후 동맥관을 박리하여 clipping하였다. 흉강경수술은 0.3~0.5cm 피부절개 3곳과 1cm 피부절개 1곳을 제 3, 4늑간에 만들고 모니터에 연결된 흉강경과 내시경용 수술기구 및 폐건인기를 이용하여 동맥관을 박리하여 clipping하였다. 술전 Qp/Qs는 MT군 2.64, VATS군 1.9이었고 수술 시간은 MT군 110분, VAST군 97분이었다. 수술후 퇴원시까지의 재원기간은 MT군 7.6일, VATS군 4일 이었다. 수술후 모든 환자에서 심잡음이 소실되었으며 MT군 1명에서 애성이 있는 외에 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동맥관개존증의 제한적 절개술에 의한 clipping은 소개흉술과 흉강경수술 모두 만족한 단기 성적을 보였으며 흉강경수술에서 수술후 재원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었다.